우암학원 창학67주년 | 취업맞춤형 특성화 선도대학
Good Smile NAMBU
남부대학교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614호 1판 (음력 9월 13일) 2017년 11월 1일 수요일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행복했어요 KIA도 팬들도

지난 30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7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두산을 7-6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한 KIA타이거즈 선수들이 모자를 하늘로 던지며 환호하고 있다. /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KIA 타이거즈 'V11'

믿음·동행으로 완벽한 우승

KIA는 지난 3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2017 KBO 한국시리즈에서 7-6 승리를 거두면서 11번째 우승을 이뤘다. '위기는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던' KIA의 올 시즌이었다.

〈관련기사 18·20면〉

FA(자유계약)를 통해 나지완을 잔류시키고 우승을 위해 '대어' 최형우까지 영입하면서 공격을 강화한 KIA는 4월 12일 1위 행보를 시작했다. kt, 롯데와 공동 1위에 올랐던 KIA는 4월 14일에는 단독 1위로 뛰어올랐다.

두산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주목받았던 올 시즌이지만 KIA는 정규시즌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으면서 무려 175일간 선두에 있었다.

톱타자 이명기와 안방마님 김민식 그리고 마무리 김세현을 만든 트레이드는 '신의 한 수'였다.

한국시리즈 전적도 예상을 깼다. '20승-200이닝'에 빛나는 헥터를 내고도 1차전 패배를 당했던 KIA는 플레이오프에서 막강한 화력을 뽐낸 두산에 밀리는 양상이었다.

하지만 양현종의 손짓이 마법이 됐다.

122개의 공을 던지면서 2차전 완봉승을 장식한 그는 관중석과 덕아웃을 향한 파이팅의 손짓을 하며 분위기 싸움을 주도했다. 그리고 마지막 5차전에서는 마무리 투수로 등판해 자신의 볼넷과 3루수 김주형의 실책으로 맞은 1사 만루의 위기를 막으며 극적인 우승쇼의 주인공이 됐다. 1패 뒤 4연승의 거침없는 질주였다.

올 시즌 힘든 시간을 보냈던 불펜진은 '만형' 임창용을 중심으로 반전의 한국시리즈를 보내면서 승리를 지켰다. '주장' 김주찬은 물론 이번 한국시리즈에서 0.526의 타율을 기록했던 버나디나는 팀을 위해 방망이를 눕히며 희생 번트를 만들었다. 또 KIA는 김기태 감독이 외쳐왔던 '동행'으로 실수한 동료의 등을 두드리면서 우승이라는 결승선을 함께 넘었다.

KIA로 인해 행복했던 2017년이었다.

"우리가 챔피언"

인구 147만 도시에서 경이로운 100만 관중 기록이 작성됐고, 한국시리즈 1·2차전 포함 5경기가 모두 매진됐다. 치열한 예매 전쟁도 화제였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5차전 경기가 끝난 뒤 열린 축승회에서 우승의 기쁨에 취한 이들은 또 다른 우승을 이야기했다.

박한우 KIA 사장은 "믿음과 동행이 있었다. 모기업과 우리 프런트는 선수단을 믿고 전부 다 맡겼다. 김기태 감독이 동행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선수단을 어우르며 결과를 이뤄냈다. 우리 모두가 영원히 동행을 해야 할 것 같다"며 'V12'을 외쳤다.

허영택 단장도 "프런트 ,선수단 하나하나가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다. 올해로 끝낼 수는 없다. 그동안 어게인 2009를 해왔는데 어게인 2017을 외치겠다"며 또 다른 전설을 이야기했다. /김여울기자 wool@

개발 광풍에 광주 마을이 사라진다

아파트 건축·도시정비·뉴딜사업 '도시역사 삭제' 심각

근현대 건축물 등 체계적인 자료 조사·축적·보존 시급

광주 전역에 아파트단지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사라지거나 현존하고 있는 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자료 축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 들어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이 추진되면 기존 시가지 내외의 경관이 크게 변화하고 거주 주민 역시 이주하면서 '도시역사 삭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건설업체가 주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 28곳, 주택재건축 16곳, 도시환경정비 7곳, 가로주택 1곳 등 52곳, 지자체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아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70곳 등 광주 전역 122곳 755만4149㎡의 면적에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상태다. 민간건설업체 주도 재개발 등은 52곳 중 13곳에서 단독주택 등 저층주거지를 고층아파트단지로 탈바꿈시키고 있으며,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49개소가 완료돼 단독주택지가 도로, 주차장, 공원 등으로 바뀌었다. 이들 대규모 개발사업만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인해 자투리 토지도 개발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여기에 5년간 50조원에 이르는 공공자금을 투입하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조만간 추진될 예정이다. 최근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공모에 광주시 1곳(5·18민주광장 재생사업), 동구 2곳·서구 2곳·남구 4곳· 북구 2곳·광산구 4곳 등 5개 자치구와 광주시가 15개 후보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광주시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중심시가지형(300억원·5년) 3곳, 주거지지원형(200억원·4년) 3곳, 일반근린형(200억원·4년) 4곳, 우리동네살리기(100억원·3년) 5곳 등이다.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15곳의 전체 면적은 144만3866㎡에 달하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6755억4100만원에 이른다는 것이 광주시의 추산이다. 시·도별 최대 4곳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주도의 고층아파트 개발과 공공 주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시가지 경관 등 외형은 물론 거주주민 이주 등으로 인해 광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상실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개발 과정에서 광주여고 건물, 남광주역사 등 근대 건축물들도 희생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알립니다

한국 문단의 주인공, 당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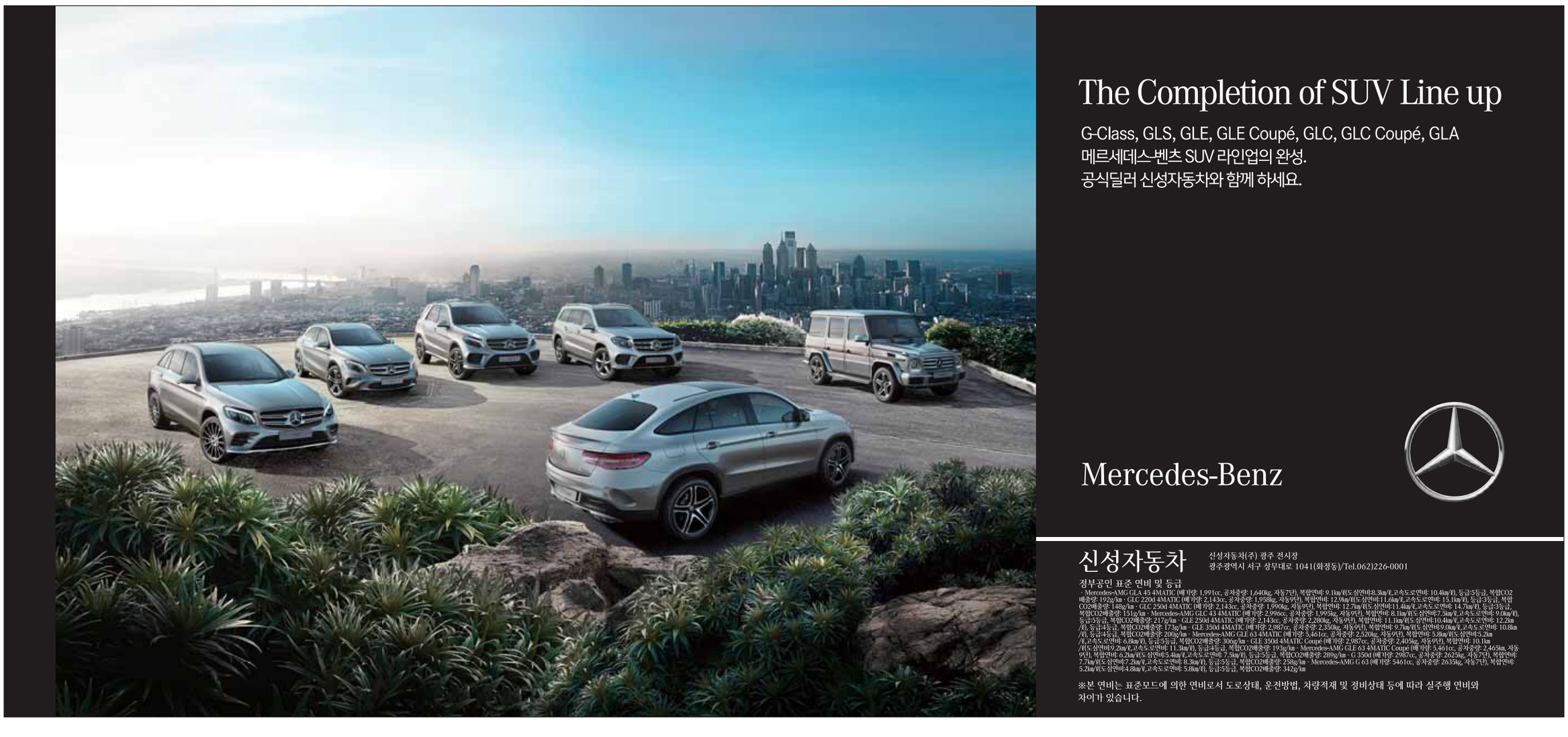
2018 광주일보 신춘문예 12월 14일까지 접수합니다

광주일보사가 한국 문단의 새 주역이 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 작가 발굴을 위해 '광주일보 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합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광주일보 창간 이듬해인 1953년부터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 돼 왔으며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 문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치열한 문학정신이 살아 있는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부문 및 상금
-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300만 원)
- 시 : 3～5편(당선작 1편, 상금 100만 원)
- 동화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100만 원)

■ 접수 마감 : 2017년 12월 14일(14일 자 소인 유효)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61482.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무등빌딩 광주일보사 편집국 문화부) 문의 062-220-0624

■ 기타 유의 사항
- 팩스나 이메일 원고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원고 접수 시 전화번호·주소·e메일주소를 첨부해 주십시오.
- 응모 작품은 발표된 적이 없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중복 입선된 원고나 기성 작품 표절일 경우 당선이 취소됩니다.
- 겉봉투에 공모 부문을 꼭 명기해 주십시오.
- 당선작은 2018년 1월 2일자 광주일보 지면에 발표합니다.

光州日報社